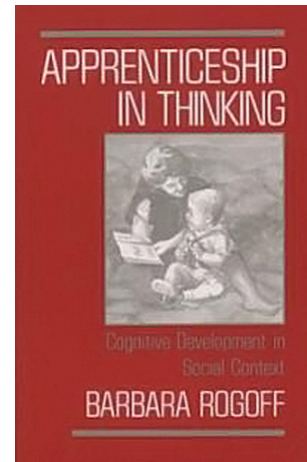


Apprenticeship in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Barbara Rogoff)

- Title: Apprenticeship in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 Author: Barbara Rogoff
- Publisher: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지난 20여 년간 교육학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행동주의,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교수학습활동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구성주의로 대표되는 새로운 관점들의 등장과 이의 확산은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학습되는지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 실시 등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의학교육 분야에서도 문제중심학습(PBL), 사례중심학습(CBL) 등 교수학습 활동에 있어서 학습내용의 실재성,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학습자의 주도적인 역할, 지식전달자가 아닌 학습 촉진자로서 교수자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교수방법들은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유타 대학교 교수이며 저명한 발달심리학자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인지적 발달에 대하여 기존의 인지주의적 바탕 위에 새로운 구성주의적 관점을 통합하려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나누어진 본문 내용을 통해 인간의 인지적 발달이 특정한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어떻게 연관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학습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인지적 도제”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인지적 성숙과정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영향, 학습활동과 같은 인지적 활동에 사용되는 여러 물리적, 정신적 지적도구들(언어, 교육기자재 등)의 맥



락적 특성,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과 행동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성숙한 안내자로서의 교수자의 역할, 학습에 있어서 동료집단의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지적 도제제도는 과거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장인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하나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해나가는 건

Korean J Med Educ 2009 Jun; 21(2): 197-198.
doi: 10.3946/kjme.2009.21.2.197.

©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습생의 과정과 같이 학습자의 인지발달과 지식습득도 특정한 사회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장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수자의 안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단계적인 학습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들, 즉, 의대생의 임상실습 교육이나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들은 이러한 도제제도에 서의 교육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많이 보인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참” 의사를 길러내는 것이 의학 교육자로서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교수자와 학습

자 사이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 시사점들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출간된 지 20여 년을 바라보는 지금에서도 교육학계의 필독서로 자리잡은 이 책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종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Jong Won Jung,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